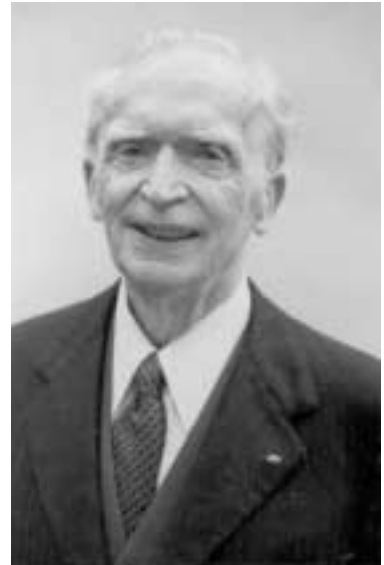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머피의 법칙을 이끌어 낸

조셉 머피 박사

주장환 |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지난 5월호부터 주장환의 「인류의 CEO, 이것이 다르다」를 연재하고 있다. 태초의 인류가 역경을 극복하고 이 땅에 자리잡은 독특한 경영이론에서부터 레오나르도다빈치, 처칠, 케네디, 주원장, 카네기 등 인류를 이끌어간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추출하여 오늘날 우리 기업인에게 필요한 새로운 CEO관을 제시해줄 것으로 본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영웅이라 할 수는 없으나, 인간이 소망하는 모습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수억 인류의 가슴에 성공이라는 확신을 심어준 위대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조셉 머피 박사다.

그는 20세기에 가장 성공한 CEO다. 그의 위대함은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등 일련의 성공학 시리즈를 읽은 수억 명의 사람들을 희망과 벅찬 미래의 샹터로 끌고 갔다는 사실이다.

그 사람들은 오늘날 세계를 바꾸어 놓은 저명한 인물이 되었다. 머피박사는 ‘머피의 법칙’을 이끌어 냈으며 빌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존 에프 케네디, 잭 캔필드(‘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 저자) 스티븐 코비(‘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저자), 심지어 후세인의 아들 우다이까지도 그의 영향을 받았다.

머피 박사의 생각은 ‘만일 행복해지고 싶다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목표를 설정하라. 그러곤 당신의 희망에 영감을 불어 넣으라’고 갈파한 앤드류 카네기의 말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는 성경의 한 구절, ‘믿음이 태산을 움직인다’는 격언 등과 맞닿아 있다.

체념과 평범함이 지배하는 정신상태로부터 결연히 벗어나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 삶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머피 박사는 경외의 인물이다.

언젠가 오프라 윈프리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누구에게나 머피의 법칙은 존재하는 법이죠. 당신이 가지는 마음자세에 따라 운명이 변합니다. 늘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다면 반드시 행복한 미래가 올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우다이는 번역가이자 소설 쓰는 조명애 박사와 90년대 초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나라가 보호받고 있는 것은 알라신의 덕분이지만 자신에게 감동의 밑거름을 퍼다 준 사람은 조셉 머피 박사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머피 박사가 가르키는 성공의 원리는 무엇일까? 그건 아주 간단하다. '누구든지 자신이 바라는 바를 확실히 정하고, 자신이 그것을 당연히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기만 하면 된다' 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기쁨의 양에 따라 언제 자신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내부 길 안내 시스템' 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머피 박사는 확언한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이라고 머피 박사는 말했다.

일단 인생의 목적을 결정했으면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을 결정해야만 한다.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무엇을 경험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가? 현재의 자신에서, 소망하는 모습의 자신에 이르기 위한 여정에서, 도달하고 싶은 곳을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머피 박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엔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아주 작은 씨앗이 들어있다. 소망하는 모습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은 항법(航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가 할 일이라곤 자신의 비전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달코자 하는 곳을 결정하고, 목표 설정과 긍정적 단언들과 마음속 생생하게 그려보기를 통해 그 목적지에 마음을 집중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내면의 위치 파악 시스템은 우리가 전

진해 나아감에 따라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할 길을 펼쳐 보여 줄 것이다' 라고 성공의 지름길을 제시했다.

머피 박사는 나아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란 말이 있듯이 가능한 큰 꿈을 꾸어라. 큰 꿈을 만드는 데 작은 꿈을 만드는 것 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들지 않는다'고 부언한다

링킨은 노예해방과 남북평화를, 케네디는 달 정복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편견과 불의가 없는 나라를 꿈꿨다. 빌게이츠는 인터넷 세상을, 버크민스터 풀러는 전 인류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바람을 가졌으며, 에디슨은 세상의 빛을 꿈꿔 마침내 이루고야 말했다.

700년 전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에서 미래 사람들을 향해 '우리들 대부분에게 더 큰 위험은, 우리의 목표가 너무 높아서 달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너무 낮아서 그걸 성취한다는 사실이다' 라며 미래의 조각들을 맞춰나갔다. 바로 큰 그릇에 큰물을 담는다는 것이다.

머피 박사의 이런 사유의 개념들은 오늘날 과학적 사실로도 증명되고 있다. 예전에 과학자들은 인간이 외부세계로부터 뇌로 흘러 들어오는 정보에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날 그들은 다른 사실을 알게 됐다. 즉, 우리는 뇌가 이전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발생하리라 추측하고 있는 것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다.

환부에서 보내온 영상을 모니터로 보면서 하는 수술 결과를 연구하는 미국 텍사스주 의사들은 쿡쿡 쑤셔대는 낡은 무릎관절을 가진 환자들에게 무릎 관절을 빼내거나, 관절을 세척하거나, 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세 가지 외과적 조치들 중 한 가지를 사용해봤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수술 중, 그들은 환자를 마취한 후 마치 외과 의료도구를 삽입하기 위해서인 양 무릎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거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그때 우리의 뇌는 우리를 위해 그 가능성을 달성시키는 일을 실제로 떠맡을 것이다.

세 곳 절개하고 나서 수술을 한 것처럼 했다.

수술 후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진짜 수술 받은 환자와 같은 정도로 고통과 붓기가 경감됐다고 말했다. 뇌는 '수술'이 무릎을 더 나아지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고, 실제로도 그랬던 것이다.

뇌는 왜 그렇게 작용하는 걸까? 머피 박사는 우리가 전 생애를 조건반사화 되어가며 보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뇌는 다음에 기대할 것이 무엇인지를(그것이 결국 그런 식으로 일어날는지 아닐지)를 실제로 배우게 된다. 우리의 뇌가 어떤 것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자신이 예견하는 것을 정확히 그대로 이루게 되는 것이라는 것.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마음속에 긍정적인 기대들을 가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고 머피 박사는 잘라 말한다. 만일 우리가 남아있는 부정적인 기대들을 좀 더 긍정적인 것들로 대체해버린다면,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거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그때 우리의 뇌는 우리를 위해 그 가능성을 달성시키는 일을 실제로 떠맡을 것이다.

그보다 더 좋은 건, 우리의 뇌가 그런 결과의 성취를 실제로 기대하게 될 것이란 것이다. 그리하여 확신을 가지고 믿고 또한 그 믿음에 맞춰 행동한다면, 우리는 되고 싶은 건 뭐든지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비전을 정하고,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욕망을 명확히 한 다음엔, 그것들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로 전환시켜야만 한다. 그리곤 자신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 행동을 해야만 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얻고, 자신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훌륭한 CEO들이 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다음 날 할 일을 그 전날 밤에 계획하는 일이라고 머피 박사는 말한다.

전날 밤 다음날을 계획한다면 할 일들 목록을 만들고, 다음날이 어떤 것이 되길 원하는지 자신이 바라는 바 그 대로를 몇 분 동안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보면 잠재의식은 밤새 그런 일들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자신이 바라는 결과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해 줄 창조적인 방법들을 생각한다. 전날 밤에 다음 날 해야 할 일들 목록을 만듦으로써, 다음 날을 뛰면서 시작하는 셈이 된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고,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이미 끌어다 놓은 상태이다. 한마디로, '일할 준비가 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남보다 한 발 앞서 가 있다는 것, 그것이 성공 포인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머피 박사는 말뚝에 묶인 아기코끼리의 비유를 통해 장애물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한다. 아기 코끼리는 태어나 자마자 아주 자그마한 공간 안에서만 지내도록 훈련을 받는다. 조련사는 아기 코끼리 다리를 줄로 묶어 땅 속 깊숙이 박아 놓은 나무 말뚝에 매어 둔다.

그것이 아기 코끼리의 행동반경을 그 줄 길이에 의해 결정되는 지역 내로 제한시켜 버리는 것이다. 비록 처음엔 그 줄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줄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 아기 코끼리는 자기가 그 줄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줄 길이로 제한되는 지역 내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성장을 해서 그 똑같은 줄을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어른이 되었을 때도, 아기 꼬끼리는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릴 때 그 줄을 끊을 수 없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가장 큰 꼬끼리는 가장 하잘 것 없는 줄에 의해 감금당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실패하는 CEO의 모습이라고 머피 박사는 예측했다. 그 꼬끼리를 통제했던 작은 줄이나 말뚝처럼 하잘 것 없고 힘없는 것에 의해 아직도 안전지대에 묶여 있는 모습은 패배자의 이미지다. 젊은 시절 받아들이고 익혔던 제한적 믿음들과 이미지들로 만들어진 줄을 잘라야 더 크게 달음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머피의 법칙 중 가장 중요한 이론 하나가 더 있다. 우리 자신의 성공에 다른 사람을 끼워 넣어 그들과 부를 함께 나누고 있을 때 더 큰 성공이 성취되고, 결국엔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금세기 최고의 부자 록펠러는 처음엔 악덕기업인으로 손가락질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자선재단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부를 나눠줌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명성까지 얻었다. 빌게이츠가 수십만 달러를 아동 구호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는 것은 어찌 보면 현명한 CEO가 취하는 사업수단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

모든 사람들은 시작할 당시 자신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일련의 목표들과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매번 새로운 성공은 미리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회들을 열어준다.

만일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고 더 큰 성공을 위해 계속 나아가고 싶다면 타인에 대한 봉사과 사랑, 그리고 자선활동을 하는 CEO가 되라고 머피 박사는 충고한다.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으로 부자가 되는 비결

1. 그릇됨이 없는 잠재의식에 힘입어 스스로 부유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라.
2. 부는 잠재의식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다. 당신의 마음 속에 부의 관념을 주입하라.
3.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원조 수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4. 잠들기 전 약 5분 동안 조용히 '부' 라는 말을 되풀이하라.
5. 부에 대한 생각이 부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
6. 잠재의식은 언제나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만 받아들인다. 따라서 지배적인 생각은 언제나 부유해야 하며, 결코 가난해서는 안 된다.
7. 다음의 말을 되풀이하라. 나는 밤낮으로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면에서 번영을 이루고 있다.
8. 그리고 다음의 말도 되풀이하라. 나의 사업은 하루하루 잘 되어가고 있다. 더욱 전진하고 진보하며, 나날이 풍부해져 간다.
9. 당신이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불과 몇 초 후에 스스로 의심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긍정적인 사실을 모두 제거해버리는 결과가 된다.
10. 부의 참된 근원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 바로 그것이다.
11. 질투나 시기심은 부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때문에 남의 번영을 즐겨워하라.
12. 부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 어느 누구하고라도 화목하도록 노력하라.